

언론 설명자료

-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운영에 관한 입장 -

2012. 3. 9 (금)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예식업 운영사업권 공개입찰 경과에 대한 설명

-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은 공정한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2011년 1월 19일 입찰결과를 발표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삼성에버랜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밝힘
- 플래닝쿠티르는 과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동창회관에서 예식홀을 맡아 운영해 오던 사업자로 동창회관 신축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내에 있는 강당을 사용하여 예식사업을 운영하기를 희망하였고 발전기금은 업체의 제안에 따라 웨딩홀 임대 계약을 체결함
- 통상 2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관례이나 플래닝쿠티르가 동창회관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에는 어차피 사업을 철수할 것이니 그 시점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007~2012년까지 5년을 기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임대계약은 2012년 3월 31일에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계약당시나 최근까지도 플래닝쿠티르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 서울대학교 동창회에서 2011년 말 완공된 신축 동창회관 건물에서는 더 이상 예식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뒤늦게 재계약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더구나 플래닝쿠티르는 지난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액 허위 보고로 인한 과징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발전기금 웨딩홀 사업자로 고려하기에는 부적절한 부도덕한 업체임

□ 삼성 에버랜드 사업자 선정 배경

- 2012년 3월31일 종료되는 웨딩홀 임대사업이 매년 14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수익은 매년 32억원이 소요되는 희망장학금 재원마련에 긴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매년 14억에 달하는 수익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서울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음

- 발전기금은 직영과 위탁경영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경영으로 방침을 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15억원의 기부금을 제안한 삼성에버랜드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함
- 삼성에버랜드는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발전기금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여 입찰에 응하게 되었고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에 상당하는 15억원을 매년 발전기금 측에 납부하기로 함

□ 영세업체의 피해여부에 대한 설명

- 기존의 예식업 주 사업자인 플래닝쿠티르는 삼성에버랜드에 예식장 연회식 공급을 하청하여 5년간 제공해왔고, 플래닝쿠티르는 그 밖의 웨딩 플래닝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구조로 운영이 되어왔음
- 이번 입찰을 통해서 주 사업자로 선정된 에버랜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연회식 공급을 계속 맡게 되며 그 밖의 플래닝 업무는 외부 중소기업체 (헤븐스)에 외주를 주어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업체와 대기업이 웨딩사업을 분담하여 동반 운영하는 종전의 사업구조는 그대로 유지됨
- 다만 달라진 점은 첫째, 주 사업자가 플래닝 업무 담당업체가 아니라 연회식 담당업체로 교체되었다는 점과 둘째, 예전에는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매년 15억원 상당의 수익금 중 임대료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개인 사업자가 전부 취득한 반면 현재는 모든 수익금에 해당하는 15억원이 서울대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점임
- 삼성 에버랜드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플래닝쿠티르 측에 플래닝 업무 외주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예비 부부들의 피해 방지와 관련한 설명

- 발전기금은 기존 계약자들을 포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업체 변경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임
- 발전기금은 공개 입찰 공고를 하기 이전인 2011년 12월 22일 이미 플레

닝쿠튀르 측에 영업권 종료사실과 2012년 4월1일 이후의 예약 건에 대한 인수인계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통보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재통보함

- 법률적으로 해석할 때 영업권 종료사실 통보는 더 이상 플래닝쿠튀르 측이 더 이상 신규 웨딩 예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여 이미 예약 받은 건에 대해서는 후속 사업자에게 인수인계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명확하게 통보함
- 플래닝쿠튀르는 현재 4월 1일 이후 결혼식 예약을 미리 받아 놓은 예약 건에 대해 발전기금 측에 10억원의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업운영권이 없는 플래닝쿠튀르가 업체 변경 사실을 숨기고 서울대 동문 예비부부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향후 플래닝쿠튀르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임
- 발전기금 측은 4월 1일 이후 예식을 예약한 계약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가 플래닝쿠튀르가 접수한 기존 예약건은 그대로 승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새로 바뀐 업체를 통해 다시 한번 예약을 확인해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계약자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입찰자격 논란에 대한 설명

- 발전기금 웨딩홀 사업자 선정 입찰 자격기준은 발전기금 내부에서 정한 규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측에서 입찰 자격기준을 어기고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함

첨부. 웨딩홀 선정 관련 입찰 및 주요 일정 정리

[첨부]

□ 웨딩홀 선정 관련 입찰 및 주요 일정 정리

2011. 12. 22. : 발전기금 → (주)플래닝쿠티르에 계약 만료 통지 발송(내용증명)
 ※내용 - 2012. 3. 31. 계약만료
 2012. 4. 1. 예약자를 이전해 줄 것(선의의 피해자 방지)
2012. 1. 4. : 연구공원본관 컨벤션웨딩홀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2012. 1. 9. : 연구공원본관 컨벤션웨딩홀 현장안내 실시
 - (주)플래닝쿠티르 김기돈 대표 참석
2012. 1. 19. : 연구공원본관 컨벤션웨딩홀 신규 사업자 선정 발표
 - 삼성에버랜드(주)
2012. 1. 19. : (주)플래닝쿠티르에 2차 발송(내용증명)
 ※내용 - 2012. 3. 31. 계약만료 재확인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예약실 등 건물명도 요청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2012. 4. 1. 이후 예약 명단 이전 요청
2012. 1. 20. : 삼성에버랜드(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2012. 1. 14. : (주)플래닝쿠티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신청서 접수
2012. 1. 17. : (주)플래닝쿠티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출 접수
2012. 2. 29. : 발전기금 → (주)플래닝쿠티르에 3차 발송(내용증명)
 ※내용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2012. 4. 1. 이후 예약자 명단을 운영사업자인 삼성에버랜드(주)로 이전 재차 요청